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장달

승리신문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의 존제익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괴질·사스 막은 구세주, 지진도 막는 전능자

“천하에 지진이 자주 일어나면 일이 다 된 줄 알아라”

지난해 9월 규모 5.8의 경주지진 발생 이후 그 여진이 새해 정유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진피해를 입은 지역에 사는 일부 주민들은 계속된 여진으로 '트라우마(trama: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런 와중에 경남 창원 정인원 법당의 '목불지장보살상'에 하얀 명주실(무병장수의 상징)을 온통 감싸는 듯 우담바라가 피었다. 상서롭고 신령스런 우담바라 개화현상에서 느끼는 바, 북방불기 3천 7년 만에 창녕 조(曹)씨로 나투신 생미륵부처님이 규모 7.0 지진 이상의 대지진이 될 수 있었던 경주 지진을 약화시키고 막아주신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불경 열반경 2권과 화엄경 78권 법계품에 '優曇華 三千年 開花 佛如優曇華(우담화 삼천년 개화 불여우담화)'라고 하였으며 격암유록 말운론에도 '釋迦之蓮 三千年 彌華出世運(석가지운 삼천년 미륵출세운)'이라고 하였는데, 곧 우담화는 석가모니 이후 삼천년 만에 꽃이 피는석 이때 미륵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신다는 것이다.



오른손은 지팡이 대신 아미타구품인의 수인을 맺었고, 왼손은 보주 대신에 법륜(法輪)을 들고서 아미타여래로 오시는 전통성왕의 모습을 갖춘 목불지장보살상에 우담바라 개화



과 판구조 운동으로 지판들의 경계 부분에서 발생하는 구조성 지진 등이 있다. 무엇보다 판(plate)의 성질이 어디로 될 지 예측할 수 없는 러빅공과 같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고 600~700km 지하에서 발생하는 심발지진은 '지하에서 수십 년에서 수천 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서 준비된 것'이라고 추정할 뿐 아직 정확한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70km 깊이에서 시작될 천발지진도 주변 환경에 따라 대지진으로 확대될 수도 반대로 사라질 수도 있다.

나머지 5%의 물질이 실리콘(규소)이란 주장을 내놓았다. 또 현대과학은 내핵에 대해서 4000~4500°C의 고체라는 가설을 세웠다. 그런데 구세주의 첨단학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빛(중성자의 빛)은 6000°C의 태양빛보다 수십 배나 밝은 빛이기 때문에 지구중심부의 불덩어리 온도는 최소 12000°C에서 최대 54000°C까지 이른다. 이렇게 뜨거운 불덩어리가 지구 땅속에 있는데 지구표면의 바닷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생각조차 못했다. 지구 땅속에 있는 빛은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빛은 생명의 빛이기에 뜨겁지만 뜨겁지 태우는 빛이 아닌 고로 물이 마를 수도 없고 또 땅이 탈 수도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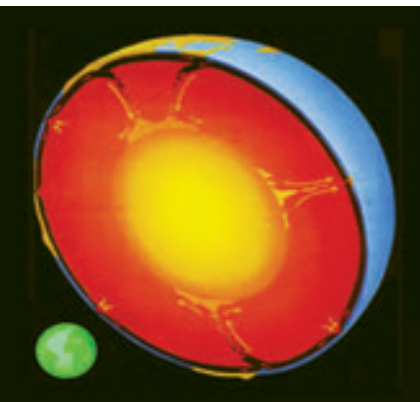
지난해 규모 2.0 이상의 국내 지진이 평년보다 5배로 급증



한미더로 지진을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통계를 통해 어느 정도 추정예측이 가능하다. 이틀테면 규모 3.0 정도의 작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5년 안에 상당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 (KISTI의 과학향기) 제457호에서 발췌

과학자도 알지 못하는 첨단 학문과 큰 지진이 없는 한반도

생미륵불 퇴신 구세주의 가르침에 의하면, 지구 땅속에 중성자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빛이 있다고 논한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지구 중심부의 내핵을 구성하는 물질의 약 85%는 철이고, 약 10%는 니켈로 추정해 왔으며, 최근에는



지구 내부 맨틀은 하나님의 빛이다(구세주말씀)

대한민국에 구세주가 계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 없다. 우리나라만은 지진이 전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해도 사람이 죽을 정도로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구세주께서 말씀하신 바 있는데,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요, 이 나라 땅은 바로 하나님의 예덴동산이 건설될 땅이고 그 땅이 하나님의 빛이 이제 땅을 뚫고 솟구쳐 나올 수가 없어요."라고 설명하셨다(2001. 11. 15 설교말씀 인용).

메르스 교환에서 구세주를 불신하면 지진 안전지대도 장담 못해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유행했던 사스(SARS)는 치사율이 10%였지만 중국과 홍콩에서만 64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 세계에서 77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한국에서는 단 한 명의 사스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하지만 지구 땅 위에 유일하게 승리제단 신도들만 왜 한국에 사스 병에 걸린 사람이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사스 괴질이 한반도에 들어오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한국에 구세주가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구세주의 말씀(2003. 3. 19 설교말씀 인용)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세주 보광 이후에 구세주를 따르던 승리제단 신도를 가운데 신앙이 식어 썩어떨어지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사스(SARS)와 사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괴질 메르스가 한국에 유입되어 186명의 감염자와 38명의 사망자를 냈다.

한국에서 사스 사망자가 전무(全無)했던 것과 달리 메르스 사망자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구세주를 불신(不信)하고 영생의 소망에서 점점 멀어지는 신앙상태에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 한국 땅에 큰 지진의 발생 유무(有無)도 구세주의 말씀을 따라 의인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느냐 줄어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다. 증산도 도전(道典) 7권 17장에 "운수는 가까이 오고 도(道)는 멀리 가리니 마음을 굳게 가져 목 넘기기를 잘 하라(중략) 지금은 원시반본(原始反本)하는 시대니 혈통줄을 바르게 하라(중략) 천하에 지진이 자주 일어나면 일이 다 된 줄 알아라"라는 강증산 선생의 선견(先見)을 잘 헤아려 살필 때가 바로 지금이다.* 박태선 기자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99)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기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품으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써야 합니다. 그냥 아무런 노력도 없이 하루하루 허송세월을 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내 상전처럼, 내 하나님처럼 여길 수가 있어야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영생체로 화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 인류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 세

상이 죽지 않는 세상으로 변하여 천국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첫 번째 영생체로 화한 사람이고 이 사람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생의 확신을 품게 되면 영생의 몸으로 변하게 되고, 이 세상 만물이 영원토록 썩지 않게 되어 이 세상이 아름다운 지상천국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요절을 육비에 새기도록 암송합시다!

구도의 길 대기설법(對機說法)과 차례설법(次第說法)

박태선 장로님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그분이 어떤 사명을 완수하셨나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로서는 당연하다. 박 장로님은 1981년 갑자기 교인들에게 전도관을 떠나라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였고,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교인들을 입에 담기 어려운 구실을 붙여서 밖으로 내쫓았다. 도무지 이해 못할 일들을 하시니 교인들은 "박 장로님이 노망을 하셨다"고까지 말하였다.

승리제단 초창기 식구들은 이런 일을 당한 전도관(신앙촌) 출신들이 많았다. 박 장로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수많은 기행(奇行)과 뜻(소위 전도관 해산 작전)을 이해하지 못한 이들은 승리제단에 와서야 비로소 그 진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박 장로님의 사명은 구세주를 배출하는 것이고, 당신은 조희성 구세주를 배출하였으니 사명을 다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해신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초창기 승리제단 교인들에게는 박 장로님이 구세주를 배출하신 분이니 운명하실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박 장로님이 1990년 2월 돌아가시자 다수의 승리제단 교인들이 술렁거렸다. 박 장로님도 돌아가셨는데 영생이 진짜 이루어질까? 라고.

이러한 일을 당하자 구세주 조희성님은 "박 장로님은 완성자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죄인이고, 그래서 사자마귀에게 죽임을 당하는 게 당연하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은 존재라도 하나님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을 결코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7년대환관(7년간의 육고) 후의 말씀(2000년 8월 이후의 말씀)에서는 "성인은 자신의 회생으로 많은 사

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다. 박 장로님은 마귀에게 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것이다"라고 마귀에게 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다고 말씀을 바꾸셨다. 그러다가 보광(普光) 직전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셨다. "박 장로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어. 어느 경지에 올라간 사람은 마귀가 죽일 수가 없어"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대기설법(對機說法)이라는 술어가 있다. "듣는 사람의 이해 능력에 맞추어 하는 설법"이라는 것이 사전 상의 뜻이다. 즉 중학생에게는 중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고, 대학생에게는 대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지, 중학생에게 대학생 말씀이나 대학생에게 중학생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세주께서는 "도의 잣(道尺)"을 먹어 영적 어린아이였던 우리를 장성한 어른으로 키워셨다. 어릴 때에는 그에 맞게 말씀하시고, 장성해서 그에 맞는 말씀을 하셨다. 마치 운명하실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박 장로님이 1990년 2월 돌아가시자 다수의 승리제단 교인들이 술렁거렸다. 박 장로님도 돌아가셨는데 영생이 진짜 이루어질까? 라고.

이러한 일을 당하자 구세주 조희성님은 "박 장로님은 완성자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죄인이고, 그래서 사자마귀에게 죽임을 당하는 게 당연하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은 존재라도 하나님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을 결코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7년대환관(7년간의 육고) 후의 말씀(2000년 8월 이후의 말씀)에서는 "성인은 자신의 회생으로 많은 사

누구든지 내 몸처럼

인생은 고행(苦海)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이 고통의 바다를 오늘도 헤매며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높은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고통의 바다를 성공적으로 건너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기신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분은 모든 고통을 이긴 분입니다.

어떤 괴로움과 시련을 이겨내고 싶다면 승리제단을 두드리십시오. '이기신 하나님'을 통하여 당신은 기필코 승리할 것입니다.

월-토요일	1부 예배 오전 9시 / 2부 예배 오후 2시 3부 예배 오후 7시(단, 토요일은 오후 5시)
일요일	오후 1시
위치	지하철 1호선 역곡남부역에서 도보 7분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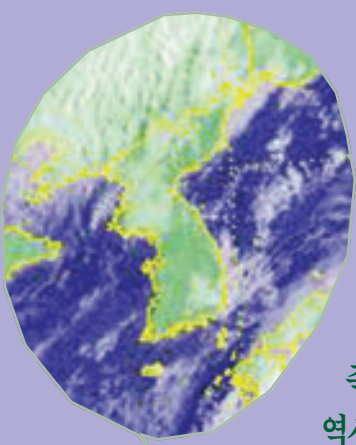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

우14679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TEL 032-343-9981~2 http://www.victor.or.kr

우·리·역·사·바·로·잡·기·캠·페·인

승리제단 우리역사 바로잡기 운동본부
(연락처: 032-343-9981, 010-5583-4938)

왜, 단군민족의 뿌리역사를 밝혀야만 하는가?
뒤틀린 인류사를 바로 잡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왜, 단군민족은 위대한 민족인가?
구세주를 낳은 민족이요, 인류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민족이기 때문이다.

승리제단은 사망을 이긴 '이기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유율법을 지키고 살면 영생을 얻게 되는

안 죽는 종교입니다.



본지 지남호는 승리제단 홈페이지 <http://www.victor.or.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